

'전주페스타' 다양한 전주 맛 알린다

10월 한 달간 전주종합경기장서 전주비빔밥축제·전주막걸리축제 등 진행

오는 10월 한 달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전주페스타 2024'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전주 맛을 알리는 축제로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전주페스타 2024'에서 전주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먹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10월 첫 주에는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는 전주비빔밥축제가 비빔패밀리존, 명품음식존, 풍류음식존, 세계비빔밥, 청년세프존 등 총 다섯 가지의 테마로 찾아온다.

올해 전주비빔밥축제에서는 전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손꼽히는 다양한 비빔밥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세계비빔밥을 제외한 모든 테

마에는 지역 자생 단체와 외식업소, 막걸리·가막업소, 대학생 등 전주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전주 향토음식과 국내외 유명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2주차와 3주차에는 전주시 주요 봉사단체들로 구성된 '맛있는 축제 만들기 추진단'이 축제장의 맛을 책임진다.

구체적으로, 2주차에는 잔치국수와 파전 등 잔치집 분위기가 물씬 나는 '맛잔치'가 운영되며, 3주차 '맛자랑'에서는 오직 전주페스타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각 단체별 한정판 메뉴가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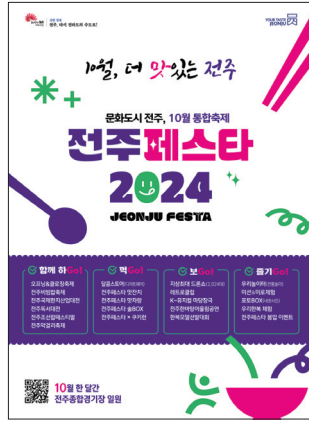
끝으로 10월 4주차에는 올해 새롭게 개최되는 전주막걸리축제가 페스타의

대미를 장식한다.

전주막걸리축제에는 삼천동 막걸리골목 등 전주 곳곳에서 내로라하는 막걸리 업소 20여 개소가 참여하며, 시는 다양하고 푸짐한 안주도 함께 제공되는 만큼 전주가막축제에 이어 전주의 핵심 주류 축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전주페스타에서는 전주 디저트페어 '달콤스토어' 등 다양한 먹거리 콘텐츠가 주경기장 안팎에서 상설 운영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맛의 도시 전주에서 개최되는 대표 통합축재인 만큼 전주의 맛있는 먹거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면서 "전주페스타를 찾은 모든 분들이 축제를 통해



전주페스타 2024 포스터
전주의 진정한 '맛'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시민 위한 문화 프로그램 '풍성'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가을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서 풍성하고 다양한 하반기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는 '집시를 입은 클래식'을 주제로 다네트가 클래식 공연을 펼친다. '다네트'는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All of me △효자동 소년 △책속의 사람 등의 다양한 곡을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클래식 기타 등의 악기로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스카메라타 아르스 악티바의 가을에 즐기는 현악 크로스 오버(9월) △무직회사의 가을의 사랑 콘서트(10월) △이니히의 겨울이 온다(12월) 등 다양한 음악 공연이 예정돼 있다.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내 창작공간에서도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 창작공간 '모야'에서는 △기러기와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팔업북 만들기 △내 얼굴 케이크 꾸미기 △나만의 모투인형 만들기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이 차례로 펼쳐진다.

또한 청소년 창작 프로그램으로

△마크라메: 데이지 램프 만들기 △플라워 캔들 홀더 만들기 △수제 빼빼로와 DIY 초콜릿 만들기 △생화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영아 신체 감각놀이 △과학 북북 △놀이발레 △유아미술 프로그램 등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한 신체활동을 배우고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부도교육 특강도 마련된다. 시는 오는 9월 25일에 김영욱 작가를 초청해 '우리 아이 평생 경제력 키우기'를 주제로 자녀 경제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와 가정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경제교육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림책에 관련된 강연과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하반기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 확인 및 참여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67)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창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세대를 위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환경운동연합,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절차·과정 검증 주장

도시계획 용도변경 전·후 시세차익 감정평가 검증 등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 시청 브리핑실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북지회 소속 11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기관 불공정 추천 경과보고서'를 익명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내용은 4월 5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감정평가사 업체 선정 과정이 '일반적인 추천 과정에 비해 공정하지 않았다'는 불공정 논란과 함께 협상조정담당 감정평가사의 이해 충돌, 짜 맞추기 감정 의혹이다.

이와 함께 대한방직 부지 감정에 참여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과 사업 시행자인 (주)자광, 협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전주시의 유착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시에서 받은 정보공개청구 자료와 지회 운영위원회 내 단톡방 대화, 11개 공시감정평가법인의 대한방직 부지 감정 평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제보 자료를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한 11개 법인 감정평가사를 면담한 결과, 대한방직 감정평가 법인으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옛 대한방직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 (이하 협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은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전주시가 대한방직 감정평가를 맡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협상조정협의회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 자리까지 맡긴 것은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위반했으며, 또한 일반적인 감정 절차와 기준을 크게 벗어난 결과,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순수 공업용지로 평가해야 할 종전 자산 평가액은 높이고, 종후 자산 평가액은 낮춤으로써 (주)자광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

의가 있다.

위의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외부 감정평가법인과 시민단체, 시의회가 참여해서 종전·후 감정평가 절차와 과정을 검증한 후, 한 점의 의혹이라도 확인될 경우 감정평가를 무효화하고, 재감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협상조정협의회에 이해당사자를 제척하고, 감정평가 검증과 함께 공공기여량 산정을 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주시 도시개발사업 사전협상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협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 감정평가사 업체 선정과 비용 부담 등의 의혹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을 전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1개 감정평가법인과 함께 자체 검증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바로 잡아나갈 것이

다"며 "시민의 이익과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해충돌의혹'에 관하여 협상조정협의회는 단순히 사업의 주요쟁점과 협상단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감정평가 금액 자체는 논의되지 않는 기구다. 협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부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추천 후 실제 업무에 참여한 평가사를 포함시켰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중정감정평가는 일반공업지역으로 평가하였으며 종후 감정평가는 지구단위계획을 바탕으로 예비 감정만 시행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본감정을 시행할 예정으로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사협회와 국토부에 질의했고 향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며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청렴·이해충돌방지 교육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가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28일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연수원 등록 강사인 연공홍 강사가 맡아 청렴 및 의원 윤리·행동강령, 공직자 행위기준, 이

해충돌 관리방안,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사례 위주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된 교육은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2년 연속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재인증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2년 연속으로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재인증을 받았다.

공단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사후 심사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매년 엄격한 사후 심사를 받아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공단은 2022년 8월 ISO 37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으며, 올해에도 부패 방지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충족해 최초 인증 이후 2년 연속으로 인증 기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공단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사장 직속의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내부 통상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리스크를 평가하고, 내부 심사 제도와 부패유형별 예방대책,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해 충돌 방지 준수 서약식을 실시하는 등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